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교리와 성약 58:4)

폴리 나이트와 그의 아들 뉴얼이 속한 콜스빌 지부 회원들은 제때에 미주리주 잭슨군에 도착하여 성도들이 집합할 시온 땅의 헌납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뉴얼 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8월 둘째 날, 하나님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 이세 형제가 콜스빌 지부를 도와 시온을 위한 기초로서 첫 번째 통나무를 . . . 인디펜던스에서 서쪽으로 약 19킬로미터 떨어진 카우 군구에 놓았다. 나무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기념하며 열두 사람이 운반했다. 그와 동시에 시드니 리그돈 장로의 기도를 통해 시온의 땅이 성도들의 집합 장소로 성별되고 헌납되었다. 이는 이 장면을 본 모든 성도에게 진정 행복하고 크게 기쁜 시간이었다. . . .

8월 셋째 날, 인디펜던스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장소가 성전 부지로 헌납되었다.”(Newel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circa 1846–1847,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spelling,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 standardized)

헌납식에 참석했던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했다.

“레이놀즈 케이훈 등 몇몇 장로들은 이 상징적인 서막을 경험하며 생동하는 가능성을 보았다. 케이훈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이 필멸의 눈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것들을 목격했다. 이 세상에서 내 눈으로 보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에즈라 부스는 이 미미한 시작에서 아무런 감흥도 얻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호기심에 오기는 했지만 겨우 그것을 보려고 미주리주까지 온 것은 아니었다.’”(Matthew McBride, “Ezra Booth and Isaac Morley,” in *Revelations in Context*, ed.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2016], 132–33, or history.lds.org)

폴리 나이트는 성전 부지가 헌납되고 나흘 후인 8월 7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아들인 뉴얼은 어머니의 임종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잠드셨다. 새롭고도 영원한 복음의 성약을 기뻐하며, 또한 사악한 이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겪고도 살아서 시온 땅을 보고 육신이 평화로운 휴식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죽음에 이르셨다.”(Newel Knight autobiography and journal, circa 1846–1847,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spelling,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 standardized)

- 시온 땅의 헌납을 두고 폴리 나이트와 에즈라 부스가 그렇게 다르게 느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실했던 폴리 나이트는 어떤 축복들을 받게 되었는가?(폴리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 주님께서 계시하신 교리와 성약 59편 1~2절을 참조한다.)
-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실한 이들은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

